

종합·해설

지역예산 확보 시급한데 '총리와 만찬' 절반 불참

'반쪽간담회' 광주 국회의원들 빈축

박주선·조영택·장병완·김동철 의원 4명만 참석

내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지난 22일 김황식 국무총리와 의원간 회동에 광주 국회의원들이 절반이나 불참, 빈축을 사고 있다.

등 4명이 참석하는데 그쳤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과 광주시당위원장인 김재균 의원,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 5선 의원인 김영진 의원은 불참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와 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광주시당위원장인 김재균 의원과 최다선 의원인 김영진 의원의 불참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와 의 '반쪽 회동'은 광주 국회의원들의 현 주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힘과 지혜를 모아가기 보다는 미묘한 반쪽과 불신 등으로 지리멸렬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총리 '캠핑 캠프' 방문 23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내 반환 미군기지의 옛 '캠핑 캠프'를 방문한 김황식 총리가 반환 기지 내 공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막오른 한나라 전대...7인 후보 열전 돌입

27일 광주서 정전발표 표심잡기

오늘부터 비전발표회·TV토론 등 '릴레이 유세'

한나라당의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7·4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다가가면서 후보들간 당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차평동 감대중간벤치센터에서 열리게 될 광주·전남·전북·제주권 후보자 비전 발표회에는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 권한 대행과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김수환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각 시·도당 위원장, 1만5000여 명의 당원 선거인단이 참여해 후보들의 열전 정전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란 의미와 함께 내년도 총선·대선 관리와 선거 지휘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 만큼 당내 제 세력 간 각축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대 총리직에는 남경필·홍준표·표영세·박진·원희룡·나경원·유승민 의원 등 7명이다.

광주·전남 예산확보 김총리 역할론 대두

내년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 확보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권의 총력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출신의 김총리가 힘을 실어준다면 광주·전남 지역 국고 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김총리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광주 국회의원들도 이날 저녁 김 총리와 만찬을 갖고 내년 광주시의 국고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와 전남의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조영택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최종 예산을 청와대에 보고하기 전에 국무총리와 협의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총리가 나름대로 지역 현안 사업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 확보와 관련, 김 총리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총리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로 보기 어렵게나 총리라는 자리가 예산을 직접 챙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야 '저축銀 비리' 國調 착수

여야는 23일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정조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조사범위에는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및 손권취득 투자자 피해 현황 및 피해 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계획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들의 사전 예금인출 경위 및 조치 ▲저축은행 제도 개선 대책 등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분회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 내달초 본격적인 국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에 대한 입장차로 국조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무혐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취업 절차와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검사)는 2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윤 의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을 쫓았다 고소인 주장의 개연성도 떨어지지 않았고, 검찰은 “고향 후배에게 후원금 형식으로 300만원을 받았다”고 윤 의장이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교육위원으로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민주 수신료 합의 '없던 일로'

김진표 원내 등 지도부 독단처리 최고위서 반발

민주당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원회는 23일 원내대표 등이 전달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한나라당과 합의한 KBS수신료 인상안을 파기하고, 오는 28일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실력 저지기로 했다.

없는 한 KBS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KBS가 정당한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없이는 그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물리적 저지도 할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전달 합의를 완전 폐기했다. 이 같이 전달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 합의가 바로 뒤집힌 것에는 김 원내대표는 당 안팎 분위기를 모른 채 손 대표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수신료 인상에 독단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매매
▶신월IC 교통광장 집 코너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대 지: 10980㎡, 임야: 13937㎡

2011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